

“반려견과 함께 해남으로 캠핑 오세요”

다음달 6~7일 이틀간 땅끝황토나라테마촌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쌓기 프로그램

해남군은 오는 11월 6~7일 땅끝황토나라테마촌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생태캠핑'을 개최한다.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테마촌 숲속캠핑을 하고, 생태탐방로, 해안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은 반려견 수제간식 만들기 및 숲속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생태탐방로 트레킹과 노즈워크 등이 진행된다.

특히 10가지 미션포토는 땅끝점에서 반려견 안고 사진촬영, 달마고도 너털에서 반려견과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주제가 주어지며, 송호와 땅끝마

을, 달마고도 등 땅끝권 일대에서 반려견과 함께 해남의 청정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션 포토를 인증하면 1~3등까지 시상은 물론 베스트 후기와 베스트 포토, 최고령 반려견, 다견가족 등에게 반려견용품과 해남특산품을 선물로 증정한다.

행사는 토, 일 중 1일만 참여하는 1일 부문과 1박2일 부문으로 참여할 수 있고,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숲속캠핑장을 이용해 캠핑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모두 20여팀, 반려견은 소형, 대형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해남 외 관외거주자는 코로나19



pcr음성확인증을 제출해야만 한다. 참가접수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이며, 군 관광실 전화접수로만 받는다.(관련 문의 군 관광실 061-530-5914)

군 관계자는 “반려견과 함께 여행도

하고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생태캠핑을 마련했다”면서, “해남의 맑은 공기와 자연을 느끼며 반려견과 견주 모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친환경 벚짚 환원 사업 추진

ha당 20만원 지원...토양 유기물 함량↑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대

진도군이 농지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친환경 벚짚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벚짚 환원사업은 농지에 벚짚을 잘게 썰어 넣고 가을갈이를 실시한 농가를 지원하는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이다.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병해충 저항력을 증가시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연순환농법 실천으로 화학비료 사용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저탄소 농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준다.

지원 단가는 ha당 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한 농가당 최대 10ha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현장 확인을 거쳐 12월경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벚짚 환원 사업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도 구축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친환경 벚짚 환원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 유치면,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및 교육

장흥군 유치면에서는 지난 21일(목) 청사 화재에 대비해 장흥소방서와 함께 전 직원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치면과 장흥소방서가 합동으로 진행한 훈련으로 응급환자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등의 사용법 교육 후 청사 화재발생을 가정하여 직원 대피유도, 화재진압, 부상자 이송 등 재난 시 다양한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구급대원 도착 전까지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화재 시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다.

문수연 유치면장은 “바쁜 업무에도 합동소방훈련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장흥소방서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실습을 병행한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발생 시 직원들의 초기 대응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유치면행정복지센터의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 기자

장흥군 - 판아시아 - 골든힐 3자 수출 업무협약

연간 50만불 지속 수출 협약으로 장흥 농특산물 세계 홍보



장흥군이 오스트리아 빈 판아시아

(정중환 회장)와 수출대행기업 골든힐(대표 한문철)과 3자 수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전라남도(국제협력관 선양규)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난 8월 아르미살(월 7톤 지속 수출)에 이어 이번 해외기업과 3자 협약을 통하여 연간 50만불의 장흥 농특산물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용경), 용두농협(조합장 백찬인) 등을 기점으로 오스트리아 빈, 독일, 미국 등에 장

흥군 특산 행사를 신설하여 장흥만의 특산물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이번 성과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장흥 농특산물의 꾸준한 판로길을 개척한데 큰 의미가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장흥군의 수출 농산물은 전남에서 약 3%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흥의 농특산물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홍보와 유통 등 마케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쌀, 잡곡류, 무산김, 장류, 표고버섯 등 다양한 농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강진읍, 노인일자리아사업 참여자 안전 교육 실시

44명 대상·내달 사업 마무리

강진읍은 지난 20일 사의재 등 노인일자리아사업 현장에서 2021년 노인일자리아사업 실외활동 참여자 44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강진읍 오남희 주민복지팀장이 문화재환경정비, 시장형노인일자리아 등 실외활동 참여자에게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출퇴근시 도로변 차량주의,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신증후군출혈열, 쯤쯤가무시증 등 예방, 코로나19 예방 수

칙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일 강진읍장은 “노인일자리아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이라고 강조했으며, “아름다운 강진 만들기에 힘써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2월부터 시작된 강진읍 실외활동 노인일자리아사업은 현재 4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강진군보건소, ‘또 하나의 생활방역 금연입니다’ 슬로건 캠페인 실시

출근길 마스크·홍보 리플렛 배부 등으로 캠페인 펼쳐

강진군보건소가 지난 22일 금연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또 하나의 생활방역, 금연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 대신 출근시간에 강진군청과 버스터미널 앞에서 플래카드, 어깨띠, 피켓을 이용해 홍보하고 리플렛, 마스크를 배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이 코로나19 위험 요소이고, 호흡기 질환의 심각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흡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서도 흡연을 코로나19 위험 요인으로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보건소는 연중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만으로도 금연 클리닉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금연보조제, 행동강화물품을 우편으로 발송해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있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위드 코로나시대를 전환을 앞두고 나와 나,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금연은 필수다”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금연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상담은 강진군 보건소(☎061)430-3543)으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